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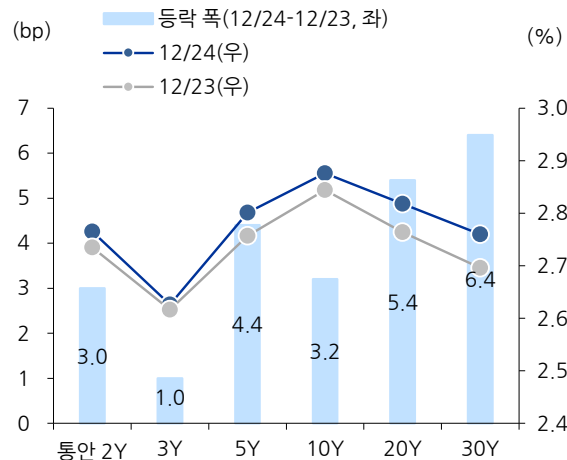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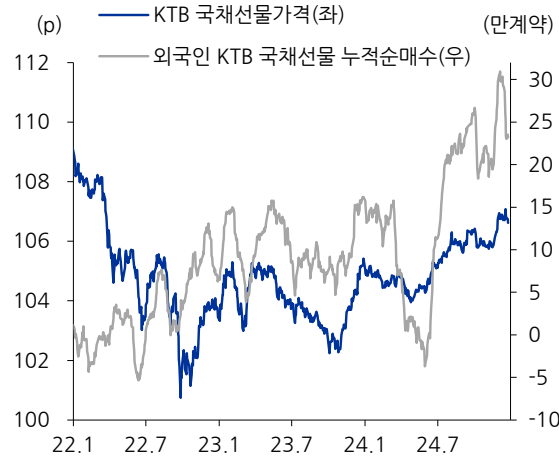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2/2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26%	1.0	0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6%	3.2	8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5.0	22.8	16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62	-13.0	-23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7.04	-50.0	-128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41%	-0.2	9.2
	미국채 10년물	4.589%	0.2	19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4.9	24.6	15.2
	독일국채 10년물	2.319%	0.0	7.6
	호주국채 10년물	4.443%	0.0	16.4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전일 미국채 흐름 따라 약세 출발. 장 중 원달러 환율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전망 반영하며 1,457.4 원까지 상승, 금리 부담으로 작음.
- 외국인도 국채선물 매도세 늘리며 약세 견인. 이외 연 말 맞이한만큼 뚜렷한 재료는 부재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주요 경제지표나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연준 매파적 분위기, 인플레이션 우려, 트럼프 취임식 앞둔 경계감으로 금리 상승. 10년 금리, 장 중 7개월 래 최고치 경신.
- 대신 최근 단기간 금리 급등한만큼 저가매수세 유입. 미국채 5년물 입찰도 무난한 수요가 확인되며 매수심리 자극. 점차 약세폭 줄이며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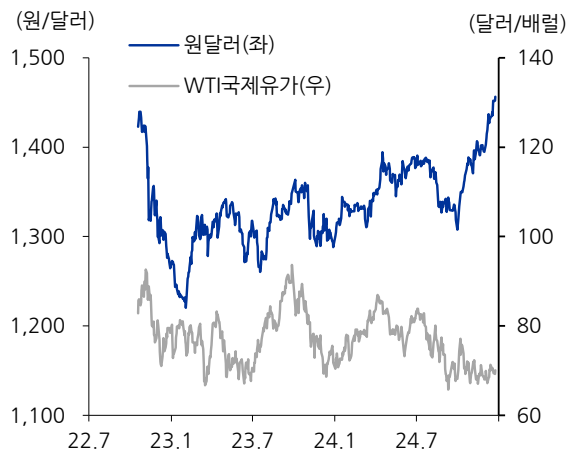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2/25일	1D	1W	YTD
원/달러	1,456.40	0.3%	1.2%	13.1%
달러지수	108.08	-0.0%	-0.0%	6.7%
달러/유로	1.044	0.4%	0.8%	-5.5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0	-0.1%	-0.2%	2.5%
엔/달러	157.31	0.1%	1.7%	11.7%
달러/파운드	1.255	0.1%	-0.2%	-1.4%
헤알/달러	6.33	2.2%	0.6%	30.4%
WTI 근월물(\$)	70.10	1.2%	0.0%	-2.2%
금 현물(\$)	2,616.65	-0.0%	0.9%	26.8%
구리 3개월물(\$)	8,950.50	0.4%	-0.4%	4.6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4.40원 상승한 1,456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는 1,457.50원 마감.
- 오전 중 일본 외환당국 구두 개입,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가능성을 주시하며 상단이 제한.
-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, 네고 물량이 소진되고 수요가 대거 유입된 까닭.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우려도 환율 불안을 뒷받침. 달러-원 환율은 연고점 경신을 지속. 지난 '09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전일 미국채 흐름에 연동.
- 성탄절을 맞아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. 경제지표나 특별한 이벤트도 없어 미국채 금리 움직임을 참고하며 등락 하였음.
- 최근 심화된 연준 매파 성향,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둔 경계감이 달러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.
- 금일 영국, 독일, 홍콩 박싱데이로 휴장.